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
희망의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

2017년 4월 13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12일(수) 11시 부터 보도)

배포일시	2017. 4. 12. (수)	담당부서	산업부 미주통상과
담당과장	박찬기 미주통상과장(044-203-5650)	담 당 자	이주영 사무관(02-3497-1788)

- 산업부 장관,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개최 -

-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 확대방안 논의 -

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**주한미국상공회의소** 제임스 킴 회장 존 슐트 대표 등 주요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

주 장관은 **지난 월 방미 성과**를 미국 업계와 공유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의 **상호 호혜적 성과**를 기반으로 이를 더욱 **확대 발전**시켜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

주형환 장관은 주한미상공회의소의 **한미 자유무역협정 에 대한 적극적 지원**이 지난 년간 **상호호혜적 성과**를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말하고

아울러 주한미상공회의소가 지난 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주년 계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은 **호혜적 경제 관계를 확대하는 성장 동력** 이라고 확고한 지지를 표명 한 것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

특히 **한미 자유무역협정 성과**와 관련 한국기업의 **대미 투자**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전 연평균 억 달러에서 이후 약 억 달러로 **배 증가**했으며 **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억 달러를 달성**했다는 점을 언급하고

한국 기업의 투자가 자동차 가전 반도체 철강 기계 석유화학 등 신정부가 역점을 두는 제조업 분야에 중점으로 **약 만 명 이상의 미국내 일자리**를 창출했음을 강조했다

또한 **교역면**에서도 년 이후 년까지 세계교역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**양국간 교역은 확대**했으며

최근 상품 교역에서의 불균형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면서 양국 간 교역이 **점차 균형 잡힌 방향**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설명했다

주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은 지난 년간 양국 간 통상이슈를 **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용한 거점 플랫폼**으로 작용해왔음을 강조하며

양국 모두 **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충실한 이행**을 통해 양국간 무역투자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

주 장관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양국 기업에는 상생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유망분야로 **에너지 제조업 투자 첨단 산업 및 기술분야 협력**을 꼽았다

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 상무부와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**에너지 산업대화** 설치에 합의했었다

미국 현지에서의 **에너지 생산과 인프라 건설**에 한국기업들이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한국을 거점으로 미국산 에너지를 아시아에 재수출하는 등 **다양한 협력 방안이 찾을** 것으로 기대했다

제조업 투자 분야에서도 미국 정부의 제조업 부흥정책 및 조 달러 인프라 건설계획 등에 따라 더 많은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**양질의 투자 기회**를 갖고 현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

마지막으로 **첨단 산업 및 기술분야 협력**을 강조하며 이미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분야 삼성과 테슬라 현대와 구글 엘지화학과 지엠 등 양국기업들이 공동 연구개발 와 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만큼

이러한 협력이 사물인터넷 **인공지능 가전 입체 프린팅** 등 분야로 확대될 경우 미국의 혁신적 원천기술과 한국의 생산기술이 결합해 큰 동반상승효과를 낼 수 있고 제 국 공동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 제안했다

주 장관은 현재 한국정부가 미국 상무부와 함께 **산업협력의 틀**을 만들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설명하고

앞으로 양국 기업 간 교역 및 투자 협력이 **확대 강화**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대한 **정책적 제도적 지원**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이주영 사무관 (☎02- 3497-178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